

†찬미예수님

사랑하는 하모니 님들!

어느덧 올해의 중간으로 접어드는 7월입니다. 반절이 훌 지나가 아쉽기도 하지만 앞으로 남은 올해의 반을 보다 의미있게 보내기 위해 고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기도 하지요. 올 해 열심히 지내온 스스로에게 격려와 칭찬을 전하며 희망찬 앞으로의 반을 위해 영차를 외쳐봅니다. 😊

7월 첫째주 공지 드립니다~

(오늘 생일을 맞이하는 홍상미 세레나 자매님, 축하 드립니다!)

<지난주 활동>

하모니 소풍

7/3일 주일 교중미사 후 알라미다 바닷가 옆 Shoreline Park 에서 조출하나 즐거운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함께 해 주신 님들, 최 신 부님, 그리고 당일 급 초대된 우리 트락 친구들, 모두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획할 크고작은 행사에 하모니님들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진은 밴드에 올리겠습니다.

영화의 밤 - 7/8 금

7/8일 성당에서 하모니를 위한 영화의밤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오후 6시로 예상하며 영화는 현재 미정이니 혹시 관람을 원하는 영화가 있으면 알려 주세요. 저녁/다과는 참석자들이 함께 부담하며, 준비를 위해 7/7(목)까지 참석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름표

성당 입구에 교우분들의 이름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서로의 이름과 본명을 익혀 서로 알아가며 관심갖는 공동체가 되기위한 신부님의 지침이시니, 성당에 계시는 동안 항상 부착해 주시고 개인이 지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저희 하모니는 연령별 단체로, 지역별로 나뉘어진 구역/반(1-4구역)에 속해있지 않습니다. 작년까지는 트락회=트락구역으로 불리어 이번 명찰에 '트락반'으로 기재 되었으나 하모니가 결성된 후 '트락반'이라는 편성이 적절히 않은듯해 신부님께 이를 말씀 드립니다. 따라서, 하모니 멤버들은 앞으로 거주지에 따라 해당 지역 반(버클리반, 프리몬트 반, 등)으로 재편성 될 듯합니다. 이는 성당 운영상 구역/반을 정하는 기준이며 하모니 모임에는 아무런 차질이 없습니다. 하모니님들에 대한 반 편성이 결정될 때까지 하모니 이름표에 기재된 '트락반'은 지우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교적

현재 교적이 다른 본당에 있는 분들은 오클랜드 본당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이는 개인의 신앙생활/기록과 더불어 위의 이름표와 같이 해당 구역 편성등 성당 운영에 관련해 필요한 자료입니다. 교적이 있는 타 본당에 연락해 오클랜드 본당 사무실로 교적 이전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2016년 연수 (7월 30-31일)

장소: Villa Maria del Mar 피정센터 (<http://www.villamariadelmar.org>)

드디어 7월, 연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비신자 궁금증 105가지' 책 읽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책읽기 일정을 보내 드립니다.

알맞은 분량을 매주 조금씩 읽어 연수전에 부담없이 끝낼 수 있도록 짜여졌으니 참고 하시고 매주 공지와 함께 본인의 독서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첨부파일 사진*

- 7/6(수)-7/10(일): 1장 성경에 대한 궁금증

- 7/11(월)-7/15(금): 2장 믿음에 대한 궁금증

- 7/16(토)-7/20(수): 3장 교회에 대한 궁금증

- 7/21(목)-7/23(토): 4장 성사에 대한 궁금증

- 7/24(일)-7/28(목): 5장 전례에 대한 궁금증

- 7/29(금): 쉬거나 전체적으로 훑어보기

- 7/30(토)-7/31(일): 연수

연수 참가자 분들은 필독하시고 책 구입은 회장단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석 못하시는 분들도 구입 가능합니다. \$10)

연수 참가 신청도 회장단에게 연락 주십시오.

본당 로고 공모

본당을 대표할 로고를 7/31일까지 공모합니다. 로고의 의미와 시안을 성당 이메일이나 (standrewoak@gmail.com) 사무실로 보내 주시면 신자들의 투표를 통해 시상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부님 강론: 성 김대건 안드레아

한국인 최초의 신부님이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7/5일)을 맞이하여 지난 7/3일 주일 미사에 본당 신부님께서 강론 시 보여주시신 PBC 평화방송 제작 (압축된) 동영상을 공유합니다. 특히, 미사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 본 동영상을 통해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삶과 신앙에 대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Onsp2lqfHI>

연중 제 15주일: 7월 10일 복음 말씀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0,25-37


그때에 25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26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27 그가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시다.” 하고 대답하자, 28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29 그 율법 교사는 자기가 정당한 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30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주검으로 만들어 놓고 가 버렸다. 31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32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33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34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35 이튿날 그는 두 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때에 갚아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36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37 율법 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기쁘 하루 되세요~ 

하모니 harmonycatholic@gmail.com

2016 하모니 회장단

전진영 베로니카 [510-229-2464](tel:510-229-2464)

박보라 율리아나 [917-817-8908](tel:917-817-8908)

김정호 이냐시오 [510-299-2297](tel:510-299-2297)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enter
6226 Camden Street
Oakland, California 94605
T [1-510-553-9434](tel:1-510-553-9434)
www.oakcc.org

5 Attachments

